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발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616호 현대불교  
2007년 2월 21일(음력 1월 4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문** 우리가 지금 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인공에 대한 간절하고 확고한 믿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힘이 없는 행을 할 수 있는지어췌고 싶습니다.

**답** 그렇죠. 도(道)는 생활이 도예요. 생활이. 판 데 도가 있는 게 아니예요. 우리를 버리고 도가 있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처도 우리와 틀이 아니고 도라는 이름도 우리와 틀이 아니고 그냥 평정한 생활에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깨웠다 깨지지 못했다 이거를 뛰어넘으세요. 이거를 버리고 뛰어넘으세요. 버리라니깐 그냥 아예 저 개천에다 피라박지 마시고 자기 원소에다가, 자기 주인공에다가 그냥 놔 버리세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도예요. 그냥. 무슨 별

가서 화하니깐요. 이 소리 누구나가 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이 소리를 잘 들어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도인 아닌 도인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행은 도인의 행으로서 우리가 산다면 요다 음에도 그렇고 그냥 도인이 되는 거죠. 도인이죠. 뭐. 머리 안 깎았다고 도인이 아닌 게 아니예요. 우리는 입산할 때에 머리를 깎습니다. 이 머리를 깎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잡초, 그저 덧없이 이렇게 자라는 풀들, 이거를 깎아 버리고 원 하나만 남기려고 이렇게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고 나면 뭘 할니까. 깎고 나면 또 자랍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깎고 나면 또 자라나. 또 자라면 마천가지가 되는데 또 자라도 나지 않는, 머리가 나지 않고도 남이 있다면, 그래서 힘이 없이 하고, 또 머리를 깎지 않으면서도 깎고 깎으면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꽃이 뭘니까, 그냥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허공으로 다니면서 찰나찰나 행하신다, 힘이 없이 하신다 이런 겁니다.

안 좋은 꿈을 꾸었는데...

**문**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저의 어머니가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 외중에 집으로 가는데 큰 트럭이 달려오기에 피해서 인도로 올라갔는데 주욱 미끄러지면서 조카를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잠을 깰는데 혹시 좋지 않은 징조인가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 꿈을 꾸고도 그렇고, 스스로 눈물이 나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종계만 생각을 하세요. 열토당토않죠? 꿈은 열토당토않게 했는데 열토당토않게 좋게 생각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규정이 돼서 대 놓은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거기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이렇게 꿴대요. 아, 그냥 큰 거 밑에 얹힌 암흑 속에서 자기 아들이 돌돌 말려서 송두리째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암흑 속으로.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이 계신데 암흑이 어디 있고 밝음이 어디 있나. 아이구, 승진하겠구나.' 그랬는데 아들이 승진을 했대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생각 그렇게 내 주는 게 나도 고맙고, 그쪽도 고맙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이성 제쳐둬. 이성계가 다섯 가지의 꿈을 꿴는데 그걸 누가 못 쓰게 인도를 했다면 임금도 못되고 아무 것도 못했는 거예요. 무학 대사가 그만쯤 핵 돌려서 애길 해 줬기 때문에 임금이 되고 갈잡이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모든 거는 생각에 달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기쁜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싱긋이 웃고 그저 묵묵히 걸어 가는 자세로써 우리는 항상 즐겁게 봄이 온 듯이 삽시다.

나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럴 뿐이지, 가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여러분이 그걸 아세요. 어떤 때는

뭘 하려다가도 세태로 보면 꼭 이게 뭘 거 같은데 마음에서는 그게 석연치 않아. 마음에서 석연치 않은 건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깥으로 돌아볼 때 이익이 있을 만한 것 같아도 안에서 석연치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안에서 자신이 있을 때 딱 쥐어야 문제가 안 되지, 남들은 그냥 잘된다고 하지만 안에서는 석연치 않거든. 그럴 때 잡으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사는 데 고초가 좀 떨어질까 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내 마음속을 잘 아시라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나 아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그렇게도 빠져라게 깊은 사연들이 많아서, 눈물 속에 피가 섞여서, 여러분과 같이 흘리는 그 눈물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말로만 이리다던 비락을 맞게요? 허허. 정말입니다! 간절히 여러분한테 말씀 한마디 해 드릴 때 내가

우주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문** 스님께서서는 저희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요?

**답** 당신이 누구예요? 일체 만 생명이 다 주인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서는 셋발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물질이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과 더불어 우리는 같이 공해서 이렇게 돈다니까요. 같이, 삼각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주 전체가. 그랬는데 내 주인공이 따로 있고 남의 주인공이 따로 있던 말입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려고 생각

## 그냥 싱긋이 웃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세로

## 우리는 항상 즐겁게 봄이 온 듯이 삽시다

다르게 해야만 도가 아니예요.

남을 원망 안 하고 실질적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 말 할 거 없이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픈같이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하시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존경하고 이렇게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존경하셔만 말입니다. 나쁘든지 좋든지 존경하란 말입니다. 무슨 좋은 사람만 존경하고 나쁜 사람은 존경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이 있다 하면 존경하란 얘깁니다.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화할 테고 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화할 테고 사람이 바뀌지는 이율이 찰나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응용해 보시면, 이게 사람 모습은 그냥 뇌우고도 마음이 한 찰나에 날아기도 뭐 다른혹성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을 한번 지어서 잘해 보세요. 진짜로 믿고, 그러면 자기 주인공이 때로는 보디가드가 되고 때로는 지장이 되고 때로는 철성이 되고 때로는 허공신이 되고 때로는 용신이 되고, 그냥 당신이 필요할 대로 돌아

서도 깎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사들이 산에서 수업을 깎으려야 깎을 수도 없고 머리를 깎으려야 깎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형편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른 겁니다. 멋으로 기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남을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니 요만한 것 하나 이해 안 가는 게 없습니다. 남을 욕하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차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공심이다.' '부처님이 만 개라도 일 불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저 항상 부처님과 틀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꽃이 이렇게 핀 거 보면 좋죠?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우담바라 꽃이라고, 이 연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그렇게 뒀느냐?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니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도 못지않게 아름다우니까 바깥으로 내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꽃입니다. 그게, 마음의 꽃. 그래서 우리가 행을 잘하면 이 꽃이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탁 놓을 수 있는

##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훨훨 날 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알았소." "알았소." 이라고선 돌아설 때, 그 알았다고 하는 말 한 마디를 꼭 말로 '알았소'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중노릇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입이 써서 입맛을 찌꺼 다시면서, 쓰면 서도 싱긋이 웃으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신에 근심하지 마시고,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탁 놓을 수 있는, 믿고 놓을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훨훨 날 겁니다. 아마.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바람결같이 이 세상에 왔다가 바람결같이 가는 세상에,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짊어질 것도 아니니 무겁게 짊어지지 마세요. 가볍게 아주 탁탁 털어 놓으세요. 마음에 무겁게 짊어지면 몸도 아주 무겁고 아프고 모든 질차가 전부, 인간이 살맛이 안 납니다. 탁탁 털어 놓으십시오. 주인공에 놓으라고 일러 드렸는데도, 맡겨 놓고 사사라고 간곡히 일러 드렸는데도 그걸 놓지 못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난들 어렵습니까?

이 드는 것까지 놓으세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했던데요, 그래서 옛날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불이라는 건 어떠한 결 뜻하겠습니까? 우리네 생명 즉, 마음입니다. 마음과 더불어 그 마음으로 자기 하는 대로 자기 심판을 받는 거지, 누가 심판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될 수 없다' 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하느님이 죽나, 나이면서도 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구리의 생명과 닭의 생명이 틀입니까, 하십니까? 틀이 아니죠?

일체 생명은 틀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까요. 어떻게 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은 작고 크고 할지언정 어떻게 생명이 틀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에 생각을 자꾸 붙여서 고통 만들지 마시고, 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관하십시오. 딱이 어디서 온 걸 알면 일체 만물만생이 어디서 온 걸 알 테니까요. 우주의 근원이 어떠한 것인가

22면으로 계속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병행됩니다.

###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 11월 30일부터 ~ 2007년 3월 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엔터테인먼트,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켄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 제12주 2월 15일 - 2월 21일 [717km]

날 짜	출발지	도 착지	거 리
2월15일(목)	서 산	-	당진읍 25km
2월16일(금)	당 진	-	삼교호 18km
2월17일(토)	삼 교	고성 화진포	금강산 300km
2월18일(일)		금강산 관광	30km
2월19일(월)	금강산	고 성	삼 교 300km
2월20일(화)	삼 교	-	안 중 24km
2월21일(수)	안 중	-	발 안 20km

#### 제13주 2월 22일 - 2월 28일 [154km]

날 짜	출발지	도 착지	거 리
2월22일(목)	발 안	-	안산팔곡 25km
2월23일(금)	팔 곡	-	신 천 24km
2월24일(토)	신 천	-	월미도 20km
2월25일(일)	월미도	-	김포장기 24km
2월26일(월)	김 포	-	강화읍 21km
2월27일(화)	강화읍	-	외포리 19km
2월28일(수)	외포리	마니산참성대	함허동천 21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